



광주 스마일센터 개소 1주년 광주스마일센터는 27일 광주시 동구 구성로 센터에서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 치유를 위해 임상심리 전문가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의 심리치료, 집단 프로그램,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9 | 해질 17:21 | 다음날 해돋이 11:56 | 다음날 해질 23:21

겨울 재촉하는 '비'
저기압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가 내린 뒤 밤부터 점차 그치겠다. 예상강우량 5~20mm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8/15	보성	비	6/15
목포	비	9/14	순천	비	10/14
여수	비	11/15	영광	비	8/14
나주	비	6/14	진도	비	9/15
완도	비	9/15	전주	비	8/12
구례	비	6/13	군산	비	8/13
강진	비	9/15	남원	비	7/12
해남	비	10/15	흑산도	비	12/15
장성	비	6/1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동~남동	0.5~1.0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동~남동	1.0~2.0	서~북서	1.0~2.5
남해	서부	동~남동	0.5~1.0	남서~서	0.5~1.5
남해	서부	동~남동	1.0~1.5	남서~서	1.0~2.0

◇생활지수

식중독	38
운동	8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1:05	05:58
	23:51	18:39
여수	밀물	썰물
	06:32	00:36
	19:36	13:17

◇주간 날씨

29(토)	30(일)	12/1(월)	2(화)	3(수)	4(목)	5(금)
☀	☁	☁	☁	☁	☀	☀
10/16	6/12	7/9	0/5	-1/6	-1/6	0/7

전문인력 태부족... 뒤로 가는 장애인 인권

■ '인권침해' 논란 전남지역 장애인시설 관리실태
22개 시·군중 16곳은 담당 공무원이 고작 한명
정기 점검·상담 사실상 불가능... 법적 권한 한계도

전남 지역 장애인 시설에 대한 감독 기능이 미흡,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열전 노예' 사건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데 이어 신안군 한우리복지원의 참혹한 인권유린 행태가 드러나면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장애인 생활시설은 총 31곳(법인 14·개인 17)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만 1211명(법인 802명·개인 409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장애인 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침해 요소 등을 점검할

전남도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주 인력이 소장 1명과 상담사 2명에 불과, 22개 시·군 곳곳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살피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만 인권센터 상담사 1명이 260회 이상 상담을 진행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실태 점검이 어렵다 보니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인권센터 설명이다.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꾸준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절실하지만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인권센터의 권한도 제한돼 피해 장애인의 제보를 받더라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권 침해 사례가 의심될만한 복지시설을 조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방조개기 혐의 건축사 업무정지 취소해야” 광주지법, 사실 인정 증거 부족...전남도 패소 판결

전남도가 '허가받은 것과 달리 건물 방 면적을 쪼개 가구수를 늘린 사실을 알고도 허위 검사 조서를 제출했다'며 건축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27일 A씨 등 27명의 건축사들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명을 제외하고 "전남도가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용도변경이 문제가 된 1명에 대해서만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전남도는 다가구 주택의 '방 쪼개기' 등 불법 증·개축 실태 점검을 벌여 건축사 61명을 적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45일~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건축사 48명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32명이 승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전남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를 할 당시 '방 쪼개기' 등으로 가구수가 늘어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건축사들이 '방 쪼개기'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적법하게 시공됐다는 허위 검사 조서를 제출했다는 전남도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또 "설령, 건축사가 현장 조사 당시 가구수 증가가 예상되는 복도 쪽 내력벽 출입문 설치 공간, 가구 간 경계벽의 전기 분전반 등이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공 상태를 원상 회복하는 게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 안팎에서는 "안전"을 우선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신안 ‘인권침해’ 장애인시설 폐쇄하겠다”

전남도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드러난 신안의 장애인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일보 11월 27일 7면>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인권위원 조사 결과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지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남도는 현재 시설 내 장애인 25명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설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해당 시설장이 올해 초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열전노예' 사건 피해자 3명의 공공후견인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체벌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이 퇴근한 후 일몰 전후에 장애인들을 마당에 있는 개집에 갇어 함께 감금하기도 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조사결과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0) 대신프리모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기본3인분 3+3 = 30,000원
기본4인분 4+4 = 4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대만리는만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원할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임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작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형 브랜드 손님을 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